

한국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문 영 철*

국제적인 관광 지리학의 발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내 지리 저널에서 관광을 주제로 언급했던 최초의 논문은 1933년에 발표된 바 있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은 1930년대 출판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60년대 들어서 비로소 관광 지리 연구가 시작되며 그 이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간의 국내 관광 지리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유형별 정량적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관광 지리학 연구 활동에 기초 자료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주제의 대상을 통해 일차적 분류작업을 거쳤으며, 다음으로 세부적인 소 주제 내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전체 7개의 영역을 구분지었다. 주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주제 중심의 연구 활동에서 좀더 폭 넓은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광 지리학의 기초 이론 연구에 대한 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主要語 : 관광지, 관광객, 관광자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관광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휴양, 위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관광은 일상적, 반복적 생활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가짐으로써 인간 욕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관광 지리학의 발달 과정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내 지리 저널에서 관광을 주제로 언급했던 최초의 논문은 1933년에 발표된 바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은 1930년대 출판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향상된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가속화된 대중 관광(mass tourism)은 1950년대 초반 캐나다, 독일, 일본 등지에서 관광 연구에 관심을 증폭시켰다. 대다수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관광 연구와 관련하여 시작되고 있다.

한편, 국내 관광 지리학 연구에 있어 학술적인 관심이 표현되기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 발표되었던 주요 논문으로는 김상훈의 “觀光事業의 將來考察”(1968) 및 “農村 觀光資源 開發과 地域 社會 開發”(1970) 등이 있다. 그 이후 1970년대 들어 허길섭(1970)의 “德山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와 함께 김상훈(1971), 김병문(1972), 신두채(1972)에 의해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변화와 함께 관광 지리학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고찰 없이 단지 연구 활동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간에 발표된 관광 지리학의 연구 논문들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관광 지리학의 연구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본 論考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전제로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주제별, 시기별 그리고 발표지별 변화 과정과 유형별 특징에 대해 비교·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장의 연구는 원칙적으로 관광 지리학을 주제로 발표되었던 각종 학술지의 논문과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는 지리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 관련 논문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에 따른 대 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관광지와 관광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주안점을 둔 2차적인 주제별 유형을 설정한 결과, 관광지 연구와 관련하여 ① 관광 자원 ② 관광지 입지 ③ 관광권 ④ 관광지 형성 및 변화 ⑤ 관광지 개발과 영향 등 5개 영역과 관광객에 관한 연구로서 ① 관광객의 행태 ② 관광객의 인지 및 선호 등 총 7개의 주제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동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주제별 내용에 따라 시기별 변화 과정을 살폈으며, 관광 지리학의 입지 변화와 관련하여 발표된 유형에 따라 대학 논문집과 학회지 그리고 학위 논문으로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집 등의 순으로 고찰하였다. 끝으로 정량적 분석과 관련하여 시기별 발표된 편수를 살펴봄으로써 관광 지리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관련지어 보았다.

분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1965~1994년까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1970년 이전, 1971~1975년, 1976~1980년, 1981~1985년, 1986~1990년, 1991~1994년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 참고 자료는 학위 논문, 관광 지리학, 지리학 논문 목록집, 관광학, 지리 교육 논문집, 지리학총, 기타 논문에 인용된 참고 문헌 가운데서 총 264편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동향 분석

1) 주제별 변화

1969년 김상훈에 의해 발표된 “관광 산업의 장애 고찰”의 논문 이래 현재(1994년)까지 관광 지리학의 주제별 내용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표 1, 그림 1) 전체 264편 중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가 200편으로 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는 63편으로 21%를 차지한다. 이것은 연구의 초점이 관광 행위의 주체로서 관광 행위를 실행하는 관광객보다는 생활 공간의 일부로서 관광지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별 결과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총 264편 중 90편으로 38.7%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태 연구 54편(21%), 입지론적 연구와 관광 자원의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활동이 각각 46편(18%), 35편(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입지론적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온천(12/46 : 26%)과 도시(12/46: 26%)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악(6/46: 13%)과 농촌(4/46: 8.7%) 그리고 도서 관광지(4/46: 8.7%)에 관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의 관광 활동이 상당수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온천장이라는 관광 공간 상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 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광지의 관광권 설정에 관한 연구와 관광지 형성 및 변화, 그리고 관광객의 인지 및 선호 활동에 관한 결과는 각각 4편(1.5%), 17편(6.7%), 9편(3.6%) 등 매우 낮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연구 활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의 특정 관광지에 관한 인지 및 선호는 관광객의 공간적 행동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관광 지리학의 주요 과제이며, 이에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기별 내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관광지 개발과 영향 그리고 관광객 행태 연구 활동이 주된 관심사(17/23편)였으며, 19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이전과 동일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연구 경향으로써 관광 자원의 유형 및 관광지 입지 연구로서 온천 및 도시에 관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2) 발표지별 변화

표 1. 주제별 구성비

(단위 : 편수, %)

| 대 상 | 소 주제 | 시 기 | | | | | | 합 계 | |
|-----------------------|-----------------------|-------|-------|-------|-------|-------|----------|----------|----|
| | | 65~70 | 71~75 | 76~80 | 81~85 | 86~90 | 91~94 | | |
| 관 광 지 입 지 | 관광자원 유형 | | 1 | 7 | 8 | 13 | 6 | 35(13.3) | |
| | 관 광 지 입 지 | 온천 | 1 | | 3 | 4 | 3 | 1 | 12 |
| | | 산지 | | | 1 | 4 | 1 | | 6 |
| | | 동굴 | | | | | | | 0 |
| | | 해안 | | 2 | 1 | 1 | 3 | 1 | 8 |
| | | 도시 | | 3 | 3 | 2 | 3 | 1 | 12 |
| | | 농촌 | | 1 | | | 2 | 1 | 4 |
| | | 도서 | | | 1 | 1 | 2 | | 4 |
| | 관광지 관광권 | | | 1 | | 2 | 1 | 4(1.5) | |
| | 관광지 형성 및 변화(발달) | | | 4 | 7 | 4 | 2 | 17(6.4) | |
| 관광지 개발과 영향 | 3 | 6 | 12 | 27 | 26 | 25 | 98(37.1) | | |
| 소 계 | 4 | 13 | 33 | 54 | 59 | 38 | 200(76) | | |
| 관 광 객 | 관광객 행태 | | 6 | 7 | 15 | 17 | 8 | 54(21) | |
| | 관광객 인지 및 선호 | | | | | 3 | 6 | 9(3.4) | |
| | 소 계 | | 6 | 7 | 15 | 20 | 15 | 63(24) | |
| 합 계 | | 4 | 19 | 40 | 69 | 79 | 90 | 264(100) | |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연구 활동은 비교적 활발해지면서, 관광지 입지 연구와 관광지 형성 및 변화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관광권의 인지 및 선호 그리고 관광지의 관광권 등의 분야에 관심이 표명되며 주제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연구가 전 분야로 확대되므로서 관광 지리학의 연구 영역이 한층 확대되어 오고 있고, 이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 왔던 관광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구자층이 넓어졌고, 주제 또한 다양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이러한 변화는 관광 지리학이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발표지를 중심으로 한 동향 분석은 60년대 이후 진행되어져 왔던 관광 지리학의 지리학내에서 입지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적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전체적인 결과에 따르면(표 2) 대학내 논문집에 실린 것이 3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석사학위 논문 형식과 학회지 등을 통해 각각 25%와 23%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자료집이나 박사 학위 논문 방식의 점유율은 각각 9.9%와 2.7%로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 비해 박사학위 논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는 관광 지리학의 연구 과정이 계속적으로

한국 관광 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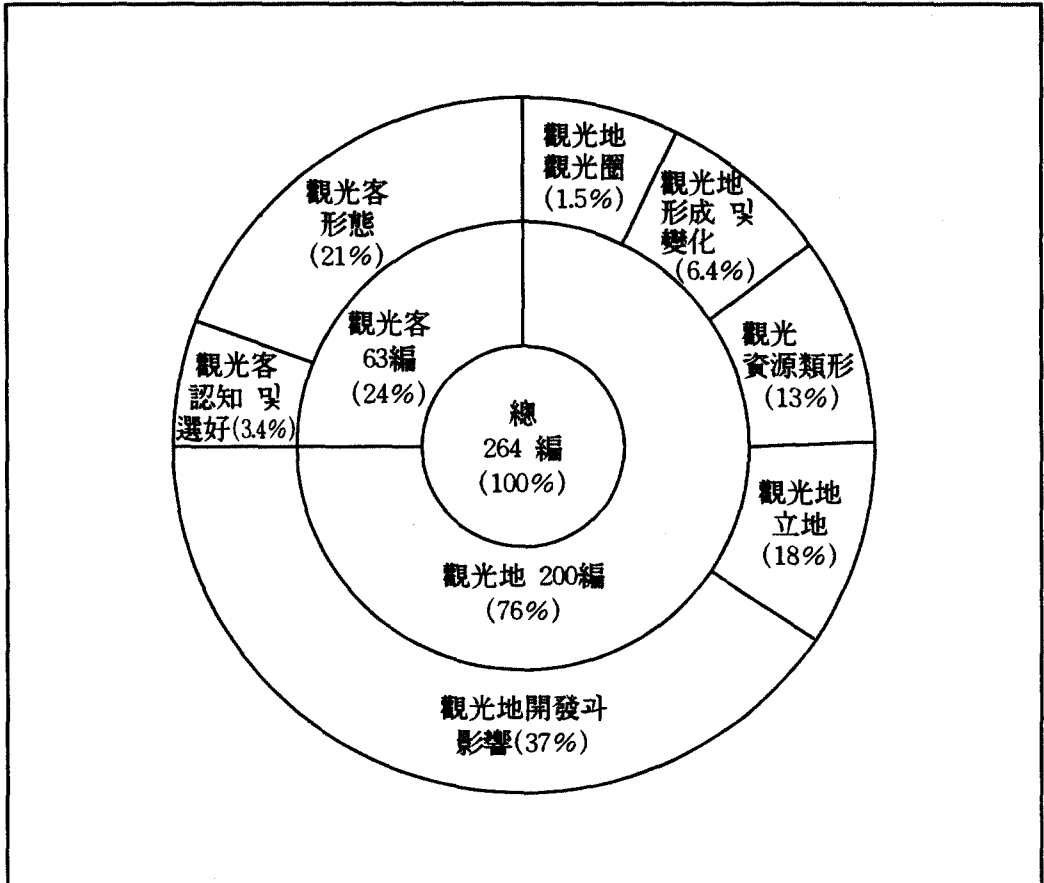


그림 1. 主題別 構成比

표 2. 발표지 유형의 구성

(단위 : 편)

| 발 표 지 | 시 기 | | | | | | 합 계 |
|--------|--------|--------|--------|--------|--------|--------|-----------|
| | 65~70년 | 71~75년 | 76~80년 | 81~85년 | 86~90년 | 91~96년 | |
| 대학 논문집 | 1 | 8 | 22 | 26 | 21 | 12 | 90(34%) |
| 학회지 | | | 9 | 21 | 25 | 15 | 60(23%) |
| 박사학위논문 | | | | 1 | 3 | 3 | 7(2.7%) |
| 석사학위논문 | | 4 | 5 | 15 | 24 | 20 | 68(25%) |
| 관련 자료집 | 3 | 7 | 4 | 6 | 6 | 3 | 26(9.9%) |
| 합 계 | 4 | 19 | 40 | 69 | 79 | 53 | 264(100%) |

심화되지 못한 채 중단된 결과이며, 오늘날 관광지리학이 안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변화에 따르면, 70년 대 초반까지는 관련 자료집이나 자신이 속한 대학 논문집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표되어짐으로써 관광 지리학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집중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학회지와 학위논문 중심으로 발표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1977년 관광학의 창간호 발행 이후 나타난 하나의 변화였다. 80년대 들어서 손대현(1983)은 "우리 나라의 관광의 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그 동안 지리학내에서 비교적 소외시 되어왔던 관광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끔 영향을 끼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김병문(1986), 김재관(1989), 윤길진(1990), 오남삼(1991), 황창윤(1992), 서미석

(1995))과 학회지 등을 통해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내 논문집을 통해 발표되거나 기타 관련 자료집 등을 통해 발표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대조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대학 논문집이나 주변 관련 자료집 방식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80년대 이후 학회지 및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표 방식의 자세를 취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관광 지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질을 한층 강화 시켜보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시기별 변화

한국 관광의 역사는 1954년 2월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1950~1960년대 유아 단계(in-fant-stage)에서 1970년대 이륙 단계(take-off-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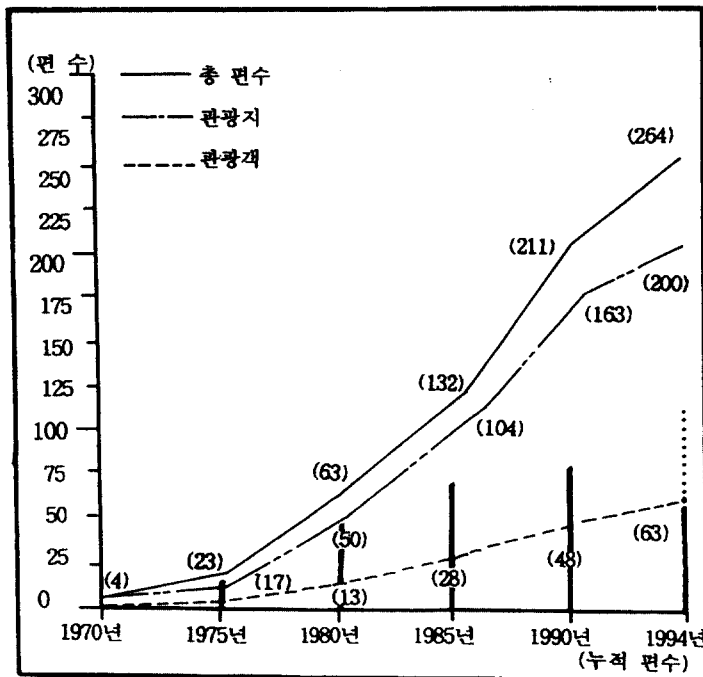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변화 과정

한국 관광 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를 걸쳐 1980년대에는 개발 단계(development-stage)의 후반기에 진입했으며, 1990년대에는 성장 단계(growth-stage)로 최종 단계인 2000년대에는 진화 단계(evolution-stage)로 꽃 피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대적 환경 변화와 함께 관광에 대한 학술적 연구 활동은 지리학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그림 2). 관광지리학의 논문은 1970년 이전의 4편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1970~1975년간의 5년 동안 4.8배 증가된 19편이 발표되며, 1976~1980년에는 10배나 증가된 40편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관심의 표명이 한층 높아진다. 1980년대 들어서는 80년대 초반에 무려 17배나 증가된 69편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20배에 달하는 79편이 발표되며 이로서 관광지리학의 위상 정립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1~1996년 동안 9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구 대상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하는 시기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80년대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즉,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이 국내에서 개최됨으로 인하여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됨과 아울러 국민 소득의 향상 그리고 해외 여행 자유화(표 3) 및 관광 유입 인구 증가(표 4)에 따른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는 관광에 대한 국내 여건 성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90년대의 학술적 성과는 오늘날 관광 정책이 성장기에 진입됨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별 변화 과정에 따르면, 관광 지역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1965~1975년의 10년 동안 17편, 1976~1980년 33편, 1981~1985년 54편, 1986~1990년 59편, 1991년 이후 38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80년대 변화가 두드러진다.

표 3. 관광 목적의 내국인 출국자 수

(단위 : 천명)

| 국 명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
| 일 본 | 69 | 240.8 | 301.9 | 295.8 |
| 타 이 완 | 26.6 | 61.5 | 65.82 | 62.22 |
| 홍 콩 | 10.4 | 34.4 | 40.8 | 41.42 |
| 싱가포르 | 2.3 | 8.14 | 15.1 | 26.6 |
| 타 이 | 8.4 | 8.42 | 27.22 | 45.47 |
| 미 국 | 8.0 | 35.56 | 63.73 | 87.04 |
| 캐 나 다 | 0.47 | 1.82 | 2.63 | 3.24 |
| 프 랑 스 | 2.7 | 5.79 | 6.69 | 7.26 |
| 독 일 | 0.64 | 2.28 | 3.06 | 3.72 |
| 영 국 | 0.94 | 4.67 | 7.44 | 8.69 |
| 필 리 핀 | 1.18 | 12.06 | 12.06 | 13.65 |
| 기 타 | 90.17 | 123.66 | 140.5 | 150.22 |
| 합 계 | 133.8 | 449 | 590 | 652 |

자료: 건설 교통부 통계 연보

이상에서 시사한바를 정립해보면 결국 70년대의 관광지리학은 관광을 주제로 학술적 도약을 위한 시기라 한다면 80년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양적 증가가 강화됨으로써 지리학내에서 관광 공간 연

한편, 관광객에 관한 연구는 1965~1975년 동안 6편, 1976~1980년 7편, 1981~1985년 15편, 1986~1990년 20편, 1991년 이후 15편이 발표됨으로써 전체 25%의 구성비를 나타내며, 전

자외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 산업은 관광 산업이 주된 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속에서 관광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행태 및 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관광객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행태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예로써, 손대현(1983)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중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관광자의 행태를 관광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 결과는 관광지

표 4. 국적별 외국 관광객 입국자 수

(단위 : 천명, %)

| 연도 | 미 국 | 일 본 | 동남 아시아 | 기 타 | 합 계 |
|-------|-----------|-------------|-----------|-----------|------------|
| 1970년 | 16(29.6) | 34(63.3) | 3(5.6) | 1(1.8) | 54(100) |
| 1975년 | 97(15.3) | 364(57.6) | 53(8.4) | 118(18.7) | 632(100) |
| 1980년 | 121(12.4) | 468(48.0) | 152(15.6) | 235(24.0) | 976(100) |
| 1985년 | 239(16.8) | 639(44.8) | 180(12.6) | 368(25.8) | 1,426(100) |
| 1990년 | 325(10.9) | 1,460(49.3) | 258(8.7) | 914(31.1) | 2,958(100) |

자료 : 건설 교통부 통계 연보

3. 연구 주제별 유형

본 절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사례 연구물들을 유형별로 구분지어 살펴봄으로서 관광 지리학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 관광객의 특성

(1) 관광객 행태

관광객은 관광 활동의 주체로 관광 산업과 관광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관광지 개발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광 요소가 된다. 관광객은 관광객의 생활 환경 즉, 관광객의 연령, 거주지, 소득, 성별, 관광 목적, 여행 시기, 관광 동기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유형에 따라서 관광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관광객의 속성 및 행태 분석은 관광지의 개발과 관광 편의 시설의 확충이라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Moller는 관광 목적, 출발지, 그룹 구성, 계절성, 체제 기간, 출발 행태 등을 관광객 연구의 주요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관광객 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 관광지로 유출되는 관광객과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김영경(1987)의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 행위에 미치는 관광객의 속성과 관광지 선택 행위의 관계를 규명한 바에 따르면, 관광지 선택의 주된 요인으로 자연 경관을 제일로 하였고, 다음으로 문화적 자원과 오락적 자원의 순을 보였다. 특히 관광객의 속성과 여행 동기 그리고 지역 선택 요인의 관계는 대체로 낮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오남삼(1991)은 서귀포 관광지역 주민들 자신을 관광객으로서 관광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국 관광의 경우 자연 관광지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결과를 갖은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관광지가 고루 이용되어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광 동기에 있어서도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관광지가 고루 이용되고 있었다. 그밖의 해방적 활동 지향성과 자연적 활동 지향 동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밝히고 있다. 조은영(1997)은 지리산 온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관광 행태 및 관광 구조를 고찰한 바 있다.

이밖에 도시민의 여가 의식 및 여가 활동에 관

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송석중(1991)은 상이한 거주 지역과 사회적 집단에 따라 여가 의식과 그에 따른 여가 활동의 공간적 유형이 상이함을 전제로 대전 시민의 여가 의식과 여가 활동을 계층별로 분석하고, 공간적 상이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평일 여가 활동은 비교적 정적이며, 소극적인데 반해 주말은 동적이며 적극적인 면을 띠었으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이며, 고비용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공간 활동이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 행태는 크게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기존의 수 많은 사례 연구에서는 배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변수에 초점을 둔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 밖에 흡인 요인으로서 잠재적 목적지의 매력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관광객의 인지 및 선호

인간의 행동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기초로 자극을 받아 동기가 형성되고, 충동을 받게 되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며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관광 동기와 관광 행동의 구조에 따르면, 관광 행동의 시작은 요구→욕구→동기→행동→만족이나 불만족에서 끝나는 관광 행동의 구조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과정을 공간적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정보의 흐름 중에서 인간은 환경에 대한 인지를 하며, 환경 인지의 과정에서 객관적 환경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주관적 여과기를 통해 지각되고 이것이 인지 구조속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심상(image)들이 형성된다. 이들 심상을 기초로 각각의 腦裡에 인지도(mental map)를 그리게 되며 이 멘탈맵에 의해 선호가 정해지고 의사 결정이 되어 인간의 행동적 행동이 행하여지게 된다.

관광객의 인지 구조와 선호에 관한 문제는 특정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공간적 행동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광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국내의 인지론적 접근은 1960년대 공간 선택에 대한 선호와 환경 인지,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행태

지리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행태주의 지리학은 1960년대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증주의의 기초 위에 형태 심리학 특히 레윈의 場理論 개념을 받아들여 발전하였다. 관광 환경에 대한 인지, 지각, 선호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관광 심리학, 관광 행태학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며, 관광 지리학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인지 및 선호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경향은 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의 인지 및 선호에 대한 연구 활동이 다수(정원일, 1989; 김재철 외, 1991; 윤길진, 1990; 박선희 외, 1985; 한병선, 19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경관 특성에 대한 평가(박선희, 1987; 하국현 외, 1991)와 풍경에 대한 인지 및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와 이용자간의 인지를 비교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경관 선호와 관련하여 하현국은 경주 국립 공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호하는 주요 경관으로서 문화재와 인공 시설물들이 조화를 이룬 장소에서 높은 선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aplan의 정보 인자인 응집성과 복잡성 그리고 신비성과 식별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인지 및 선호에 관한 논문 중에서, 윤길진은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근거로 서울, 대전, 대구 주민들을 잠재적인 관광객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국립 공원에 대한 인지와 선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 도시간에 상이한 인지 구조를 보인 속성으로써 관광지의 청결함과 관광지 주민의 친절함이었다고 밝히고, 선호에 대한 평가는 경관미와 역사·문화적 경관 그리고 관광지의 지명도에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설악산이 거의 독보적인 선호를 나타냈다.

한병선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온천 관광지에 대한 선호 행태와 관광객들의 계절별 선호 구조를 확인한 결과, 계절별 선호 구조는 각기 다른 구조를 나타내었고, 특히 봄에는 블루 칼라 직업 종사자, 겨울에는 화이트 칼라 직업 종사자로 나타내는 대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였다.

국내 관광 지리학의 인지와 선호에 관련한 연구는 지금껏 개별적인 사례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과정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일반

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사실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 관계 즉,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 지리학에서의 인지 및 선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니 만큼 주변 학문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심층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다.

2) 관광지의 특성

(1) 관광 자원의 유형

관광 자원은 관광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관광 욕구의 대상이 되며 관광 행동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사물을 일컫으며 관광지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통해 공간적인 분포를 유형화시키고, 관광 자원을 단위 지역별로 특화 시킴으로써 지역성을 밝히기도 하며, 관광 자원의 가치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의 견인력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관광객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도 한다.

관광 자원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김상훈(1984)은 수도권 관광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에서 관광지의 유형을 관광 목적형의 관광지 평가 순위에 따라 분류한 바 있다. 김병문(1986)은 한국의 관광자원을 자연 관광 자원에 의한 유형과 문화 관광 자원에 의한 유형으로 대별 시켰고, 이를 대상으로 자원별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관광 자원의 견인력에 의한 서울시의 사례에서 관광 자원 중 고궁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덕수궁과 경복궁이 A급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춘계 선호가 높은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한병선(1990)은 9개 온천 관광지 즉, 동래, 해운대, 이천, 오색, 수안보, 유성, 온양, 백암, 금곡에 대한 14개 관광 속성을 지리 행렬 방식(338*9)의 인자 분석을 통해 8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한 Clawson은 자원의 입지에 따라 이용자 중심 지

역, 중간형 지역, 자원 중심 지역으로 3구분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 Gunn은 자연적/문화적/인공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이장춘(1974)은 관광 자원을 유형/무형 관광 자원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다시 재 분류 함으로써 자연/인문 관광 자원과 인적/비 인적 관광 자원으로 분류시킨 바 있다.

관광지의 관광 자원 관련 연구는 대체로 관광 자원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사례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형 분류에는 기준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법상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관광지 입지

관광지의 입지론적 연구는 관광지의 입지, 규모, 성격과 더불어 관광 시장과의 거리 관계 등을 일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기본적 관심이 있다. 관광지의 입지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광목적, 이용형태, 관광지의 구성 요소 그리고, 관광 자원의 유형과 특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형(1986)은 경주 보문 관광 단지를 대상으로 이 지역의 지리적 성격과 입지 선정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바 있다. 김병문(1989)은 관광지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형 및 기능을 중심으로 동굴 관광지, 온천 관광지, 산악 관광지, 해안 관광지, 도시 관광지, 종교 관광지, 산업 관광지, 관광 농업지로 구분 하였고, 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의 행태 및 지역 구조 경관상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온천 관광지의 경우(오수후, 1991) 계절별 관광객의 구조로서 主冬從秋형을 보이며 경유형 관광지 보다는 체재형 관광 지역으로 성격을 보인다. 하지만 백암 온천의 경우 夏(31.3%), 春(26.8%), 秋(24.8%), 冬(16%)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主夏 從春형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그 위치가 동해안 관광 루트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의 동해 해수욕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유형의 입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대상이 위치하는 지역의 성격 여하에 따라 관광객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입지론 연구는 관광지의 관광 자원의 분

포가 의미있는 패턴을 야기시킨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자체의 입지적 특성과 인접 관광지의 관광 자원의 특성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을 규명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광지 성격이나 주요 관광 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연구 활동도 함께 병행되어야 과제를 남기고 있다.

(3) 관광권

관광권이라 하면 일정한 지표 공간 내에 있는 관광지의 관광자원을 관광객이 편리하고 값싸게 접근하여 그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지표 공간을 개발,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필요한 권역이다. 따라서 관광권에 관한 연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보전하며 관광객의 관광목적을 충족하고 관광 자원의 동질성 및 고유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화, 다양화하고 관광 루트 및 관광 코스를 설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

관광권 연구는 관광 자원의 분포와 특성에 따른 거점 개발 방식의 관광권과 자연 지형 경계 중심의 관광권, 행정 구역 중심의 관광권 그리고 관광 자원 평가에 의한 관광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관광 자원 평가에 의한 관광권을 설정하는 우선 각 요소별 관광 자원의 유형을 분류하게 되며 다음으로 가치를 계량화하여 단위 지역별로 합산한 후 관광 자원의 핵심 지역과 이 핵심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을 찾아 묶어 하나의 통일된 관광지를 형성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972년 거점개발 방식에 의해 자연 공원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정한 10대 관광권(수도권, 설악산권, 부여공주권, 속리만주권, 지리산권, 경주권, 부산권, 제주권, 내장산권, 한려수도권)이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관광권 발달은 10대 관광권을 필두로 1979년 한국관광진흥 장기종합계획에서 제안된 8대 휴민권이 설정된 바 있으며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관광 장기종합계획에 의거하여 1983년 8대 이용권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의 전국관광종합 개발 계획에서 1990년 논의되어

1990년 7월 관광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개 대 관광권과 24개 소 관광권으로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력권 설정과 관련해 김병문(1978)은 수안보 온천관광지의 관광산업의 발달과 관광객의 숙박부를 기초 자료로 이용하여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세력권 설정을 시도한 바 있다.

관광권 설정과 관련해서 관광지의 관광 자원에 의한 관광권 설정시는 관광 자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의 평가와 관련해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므로서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내포하여 왔다.

(4) 관광지 형성 및 변화

오늘날 관광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과 휴가의 증대, 대중 교통 시설의 발달 그리고 대규모 레크레이션 시설의 조직 등에 의해 날로 대중화, 다양화, 광역화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급격한 관광 지역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관광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관광지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내 관광지의 형성 및 변화는 기존의 취락과 관련되어 관광지 형성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예로서 한대현(1976)과 박종서(1982)는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 변화를 다룬 사례 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미숙(1981)은 온양 온천을 대상으로 취락의 형성 과정과 지역 내부 구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 시켰고, 한대현은 동해안 지역의 민박 지역 형성과 지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관광 겸업화의 진전 등을 파악하여 연안 어촌이 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과 특징을 규명한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김상훈(1985)은 우리나라의 주요 4대 온천 즉, 온양, 수안보, 백암, 부곡을 중심으로 온천 관광지의 형성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온천 관광지와 관련하여, 원화회는 수안보 온천 관광지에 대한 취락 구성과 관광 산업의 발달 그리고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 그는 수안보 지역이 그 동안 위락적 관광지에서 관광과

보양이 조화를 이루는 온천 취락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후석(1991)은 산사 지역의 관광 취락(법주사, 수덕사, 내장사)를 대상으로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취락의 성립·발달 과정을 통해 산사 관광 취락의 특질을 밝히고 있다.

국외 지역에서는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술한 논문들과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한 Warren Rose의 글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Deasy와 Phyllis는 펜실베이니아의 석탄산업 경관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기도 했다.

관광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계열적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둔 경관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관론적 변화를 유발시킨 주요 요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5) 관광지 개발과 영향

관광지 개발이라 하면 관광 객체와 관광 매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공간을 배치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관광 개발은 구체적으로 관광지 개발, 관광 자원 개발, 관광 상품 개발, 관광 루트 개발, 관광 정책 개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국내의 관광지 개발은 1969년 부산의 태종대, 청평 호반, 춘천 호반, 수안보 온천, 단양 팔경, 대천 해수욕장, 구두대 등이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관광지 개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관광지 개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파급 효과와 문제점들을 취급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로는 최재원(1983), 손대현(1986) 등에 의해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의 진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논문들도 다수(이장춘, 1991; 엄서호, 1991)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박사 학위 논문에서 서미석(1995)은 신안군 지역을 사례로 관광 자원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그 동안 관광 개발에서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왔던 사고에서 '아껴놓은 땅'이라는

사고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신안군의 관광 개발은 가족 중심형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관광 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전영신(1994)은 관광 개발의 파급 효과 중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곡 온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 규모와 고용 성격을 밝히고, 개발 이후 고용 형태에 대해 살핀 결과, 고용 창출이 지역 주민에게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였으나,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외의 경우 관광 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Gunn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밖에 Leiper(1981), Get(1986), Cooper and Boniface(1988) 등에 의해 관광지 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Pearce는 출발지-목적지에 입각하여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배출지, 시장, 관광 경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 관광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상당수 관광 개발에 따른 고용 효과 및 지역 경제의 승수 효과 그리고 주민의 고용 등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회·문화·생태적 측면 역시 중요하며 특히 관광지의 생태적 측면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발표된 관광 지리학과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별,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함과 함께 유형별 사례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 및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당면 과제로서 먼저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이 지

한국 관광 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리학 분야의 일부분으로 도입된 이래로 20년이 넘게 정성적 위주의 학술적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그 동안 관광 지리학은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 되어졌는 바, 이는 국내의 연구 활동이 관광을 통하여 지역의 성격이나 공간 질서 등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학술적 연구 보다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처방을 위한 현실 참여 중심으로 편중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방법론에 있어서도 일차원적인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심층적인 분석 결과가 미흡하며, 객관적인 대안 마련이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주제 중심의 연구 활동에서 좀더 폭넓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관광 지리학은 관광 개발과 그에 따른 영향 및 입지론적 특성 그리고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행태 분석에 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위락 공간으로써 기능적, 행태적 변화를 겪는 취락의 형태 및 변화 역시 관광 지리학의 주요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관광권 설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인간의 욕구 충족 시키기 위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므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관광객의 인지 및 선호에 관한 심층적 연구 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 지리학의 기초 이론 연구에 대한 연구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이나 틀, 조사 방법론 등의 이론적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초 이론에 대한 명백한 기반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는 학문은 砂上樓閣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관광 지리학에서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에 관한 이론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全無한 실정이며 다만 국외 지역에서 소개된 Doxey의 관광지 발달 4단계와 Butler의 6단계 모형 및 Plog의 3단계 이론 개발 등이 고작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의 대상별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관광객보다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이 우세하며, 분야별 성향은 관광지 개발과 이에 따른 영향과 도시와 온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

는 입지론적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경향은 주로 관광지를 찾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태 분석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관광지의 공급자이자 동시에 수요자인 관광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기별 변화에 따르면 3단계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에 따라 1970년대는 학술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1980년대는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는 새로운 전환기라 할 수 있고 끝으로 1990년대는 보다 다양한 분석 기법과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로서 그 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함께 연구자층의 저변 확대와 관련되어 보인다.

끝으로, 한정된 자료에 의해 관광 지리학의 전체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으리라 여겨지며, 주제 선정 및 대상 분류 과정 상에 다소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며, 분석상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 기준위에서 정량적 검증 결과가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文 獻

- 김병문, 1972, **경주의 관광지리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문, 1978, 수안보 온천관광지의 세력권에 관한 지역적 연구, **관광학**, 2, 19~38.
- 김병문, 1984, 수안보 온천 관광지의 세력권에 관한 지역적 연구, **관광학**, 2, 19~38.
- 김병문, 1984, **관광지리학**, 대왕사.
- 김병문, 1986, **한국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문, 1989, **관광지리학**, 형설출판사.
- 김상훈, 1968, 관광사업의 장래 고찰, **융봉**, 3, 20~36.
- 김상훈, 1970, 관광 자원의개발과 지역 사회 개발, **협동**, 4, 20~36.

- 김상훈, 1970, 농촌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 협동, 4.
- 김상훈, 1971, 서해 도서지구 관광개발 연구, 경기도 부천군지.
- 김상훈, 1985, 한국 온천 관광지의 형성 과정과 기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1987, 도시인의 관광지 선택행위-대도시 모집관광객의 경우,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관, 1994, 관광 한국지리, 백산출판사.
- 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광주-전남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선호 및 관광 행태 조사 분석, 현대사회연구, 전남대학교, 9, 263~273.
- 권용우 외, 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 동향, 대한지리학회지, 29, 201.
- 권용우·김선희, 1994, 관광 자원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29, 206
- 박석희, 1994, 신 관광자원론, 일신사.
- 박선희·진희성, 1985, 관광지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의 관광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9, 263~273.
- 박선희, 1987, 관광 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서, 1982, 관광지화에 따른 범주사 사하촌의 변모, 지리학, 10, 274~287.
- 서미석, 1995, 지방화 시대 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대현, 1983,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행동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대현·김재관, 1986, 지역관광개발계획을 위한 전략, 사회과학 논총, 5, 427~460.
- 송석중, 1991, 도시민의 여가 의식 및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대전시를 사례로,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두채, 1972, 영동지방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강원도 평가보고서.
- 엄서호, 1991, 지방화 시대와 관광지 개발 전략, 지방화 시대의 관광 진흥 정책에 관한 세미나, 교통개발연구소.
- 오수후, 1991, 온천관광지 유성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
- 오남삼, 1991, 관광지 주민의 관광 행태에 관한 연구-서귀포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현, 1986, 보문 관광 단지의 입지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춘, 1991,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정책방향, 관광 산업발전에 관한 세미나, 한국관광공사.
- 이후석, 1990, 관광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동향과 과제, 동국지리, 31.
- 이후석, 1991, 한국의 산사 관광 취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길진, 1990, 국립공원 관광지에 대한인지 및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신, 1994, 관광개발이 지역 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일, 1989, 대전시의 당일관광행동, 지리학총, 17.
- 조은영, 1997, 지리산 온천 관광객의 관광 행태 및 관광 구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1881, 온천 관광지의 지역 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준, 1994, 문화지리학 원론.
- 최재원, 1983, 지역 사회 개발과 관광 개발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지역사회 개발 논집, 5.
- 하국헌 외 3인, 1991, 경주 국립 공원의 관광지 경관 선호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5.
- 한대현, 1976, 연안어촌의 관광지화에 관한 연구, 강릉교대논문집, 8, 251~304.
- 한병선, 1990, 온천 관광지에 대한 선호 행태와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장안지리, 5.
- 허길섭, 1970, 덕산지역의 관광지리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aflamone, A.G., 1979, The impact of tourism: A case from the Bahama Island, *Annals of Tourism*, 6, 137~148.
- Boniface and Cooper P., 1988, *The Geo of Travel and Tourism*, Heinemann Pro-

한국 관광 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 festional Publish cdt, London.
- Deasy, G.F, 1966, Impact of tourist facility on it's hinterland, *Annals of A.A.G*, 56, 290~306.
- Get, D., 1986, Model in tourism planning: towards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Tourism Management*, 7(1), 1, 21~32.
- Jordan, J.W., 1980, The summer people and the natives vocation village, *Annals of Research*, 7, 34~53.
- Leiper, N.A, 1981, Towards a cohesive urriculum in tourism, the case for adistinct discipline, *Annal of Tourism Research*, 8(1), 69~84.
- Pearce, D.G, 1989, *Tourist Developement Longman Group*, Ltd, London Preface.
- Rose, W., 1981, The measurement and economic impact of tourism on Galvestion, Texas: A case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1.

The Trend and Task of Korean Tourism Geography

Young-Cheol Moon*

Summar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tourism geography for Past thirty years and an indicator for the future. I searched for the specificity by classfying of subjects, periods, and Researcher's achievements and tendencies.

The Results are followings:

① Sightseeing places are superior to visitors in research activities. Research activities are outstanding in developing sightseeing site and Its effect as well as geographical research about city and hot spring. The research activity to tourist was occupied a great number tourist behaviour to tourism place but the research was insufficed somewhat inhabitants in touri-

sm place.

② According to the period and results analysis. The period of domestic study is divided in to 3 steps. 1970s are said to be the pre-step for developing, 1980s are said to be growth step, but 1990s are considered as the age of maturity in the multiful research realm and broad theme.

Finally, I think it is difficult to analyse total outcome to the tourism geography by limited data.

This study will be evidenced on the objective standard by multiful data in nearly future because this indwelled in the subjectivity on the subject choice and process of the object classification.

* Ph.D. Course,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